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가정, 먼길을 오가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각종 세례와 입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학교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학교 테마여행 13일(화) - 15일(목) 부산으로.
멋쟁이학교 지리산 종주 13일(화) - 16일(금)
멋쟁이학교 4학년 해외 문화체험학습(이탈리아) 여행 중.
- 공동체운영위원회 연수 모임이 16일(금) - 17일(토)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18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사랑방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7 호

2022년 9월 1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아~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명절이 되어도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전화로만 간간히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던 사촌들과 조카들을 다 만나 추석 아침 함께 예배를 드리니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은퇴하신 이야기며 취직과 이직이야기, 조카들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인 건강 이야기까지 실 새 없이 이야기보따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끝내는 질경이가 어디에 좋더라. 뱀딸기 뿌리가 어디에 좋더라 등 고수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소한 일상의 사건에서부터 안타까운 사고 소식과 건강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각양의 추임새와 리액션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 133:1)

비록 함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긍정하며 위로하는 친지들의 모습을 보니 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었던 그 현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랬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잠17:17)

가족은 이런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겪고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 그것이 바로 혈육인 것이죠.

부모가 그렇고 형제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뭘레야 뭘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혈

육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참 모질게도 이런 혈육을 나 몰라라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항상 큰 무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신지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바깥에 서서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여 주었는데 이 때! 아주 모진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12:48-50)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심지어 싫고, 밉고 연을 끊고 싶어지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뒤늦게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말씀의 본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이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모든 믿는 자들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어울려 함께 삶을 나누는 모습만 보아도 흐뭇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물며 육신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자들이 삶을 함께 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랑방 식구 여러분. 시편 133편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한주간 말씀

“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합니다. ”

< 창세기 33장 10절b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여호수아기 7장

제목 : 완전히 주님께 바칩시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86 379 491 301 220

관찰]

- 1-1] 1~9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고 하나님께 물었다.
- 2] 10~18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씀 하셨다.
- 3] 19~26 아간이 “헤렘”해야 할 것을 숨겼다.

해석]

- 1]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 3] 헤렘의 죄는 공동체의 문제이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한다.

적용]

- 1]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자.
- 2] 죄의 문제를 해결 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 3] 우리 안에 죄의 문제는 없애고 우리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자.

명절에 드리는 감사

저희 시집은 3년 전부터 차례를 안 지냅니다. 이번 추석에 차례 음식을 안 하고, 먹고 싶은 음식만 하니 얼마나 한갓지고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편한 것은 먹지 않는 차례 음식을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신앙적 결단 없이 지냈던 것에 대한 후회에서 통쾌하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은 장남이 제사 때 직접적인 참여를 안 해서 어머니 마음이 불편할까 봐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까지 음식만 하고 마음은 동참하지 말자는 의도였지만, 지나놓고 보니 신앙적 결단 없는 비겁한 핑계였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체한 듯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다 보니 아이는 신앙을 떠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채무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 잘 믿고 부르심 가운데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퍼뜩 제사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남편에게 제사 안 지내고 싶고 다른 것으로 장남 노릇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제사 때 안 가겠다고 선언했고, 신앙인만큼 정성을 바치며 제사에 온갖 기대를 걸었던 시어머니도 “제사 지내봤자 잘 되는 것도 없다면서 안 지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감사했던지요. 이렇게 큰 부딪힘 없이 해결될 것을 왜 진작 결단하지 못했는지 아쉽더라고요.

이후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큰 채무도 해결하게 해 주셨고, 아이가 진로를 정했고,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생활 가운데 끊을 것은 끊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사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허락된 삶을 주셔서 늦었지만 거듭 감사드려요.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민수기 6 : 24-26 인도자
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b 인도자
79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창세기 33 : 1-11 설교자
589 사랑방
“ 정의로운 만남을 이루십시오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3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516(1)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정승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모두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정의로운 만남을 이루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만남. 배경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의 나그네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야곱은 압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형에게 가까이 가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3>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4> 이 과정에서 야곱은 형에게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합니다.”하고<10> 말했습니다.

좋은 만남, 정의로운 만남.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던 형제가 만나는 감동적인 만남, 감정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감격적인 만남,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한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적인 만남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잘못)를 해결하는 정의로운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단순히 좋은 만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는 정의로운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의로운 만남을 이루십시오.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로운 만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만남은 다른 개인에 대한 험담이나 공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만남을 위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 잘못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잘한 일을 기억하며, 겉의 사람만 보지 않고 속의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일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모두가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를 조마조마하며 기다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꾸러기들은 감사하게 학교에 와서 잘 지냈습니다.

말게 개인 수요일에 조선시대 임금님의 집, 경복궁에 다녀왔습니다. 잔치를 베풀던 경회루를 제일 먼저 보고 왕의 가족 정원이었던 향원정, 왕비와 왕의 거처인 교태전과 강녕전 그리고 경복궁의 핵심인 근정전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별을 피하느라 그늘을 찾기 바빴지만 궁궐에 곱게 칠해진 단청과 궁의 지붕에 있는 수호동무들도 유심히 보았구요.

마지막으로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했습니다. 갓이 달린 모자를 쓰고 창과 칼, 악기를 든 많은 사람들이 왜 문을 지키고 저렇게 교대의식을 하는지 꾸러기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위엄 있게 딱 버티고 서 있는 수문장 아저씨와 사진을 찍은 일은 경복궁에서의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송편도 빚었습니다. "내가 만든 송편은 누굴 닮았나 랄랄랄라 동그라미 보름달 닮았네." 화요일에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솔잎을 따서 다듬어 두었지요. 그리고 목요일에 깨, 녹두, 건포도를 넣은 송편을 빚었습니다. 이번 요리에도 장미숙 권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쫄깃하고 맛있는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지루한 순간, 그만 멈추고 싶은 순간,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좀 참고 견뎌야합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열심히 송편을 빚은 꾸러기들에게 맛있는 송편이 찾아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어린이 멧쟁이 선생님들께 드리고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송편까지 잘 담아서 갔습니다.

< 교사 : 전향욱 >

어린이학교

월요일엔 비가 오락가락 했고, 화요일은 태풍이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상태이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 1시간 늦은 등교를 했습니다. 텐트가 넘어진 것 외엔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부서별(도서부, 물건관리부, 체육부, 시설관리부) 부원을 발표했습니다. 한 학기동안 어린이학교 식구들을 위해 봉사할 친구들을 자치회에서 정했는데 나름 경쟁도 있었답니다.

1학기 여름 방학과제 시상을 했습니다. 모두 넘 잘 해와서 아차상(구렁이 담 넘어 권)까지 주었습니다. 시상을 한 친구들과 근사한 곳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며 축하의 자리를 가집니다.

13일(화) ~ 14(목) 테마여행으로 KTX를 타고 멀지만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합니다. 5개조로 부산의 구를 나누어서, 각조마다 보고 싶은 것, 먹어보고 싶은 것 등 제2의 도시 부산을 느끼고 즐기려합니다. 15일(금)은 여행 휴교합니다. 여행기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어려움 없이 잘 다녀 올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멧쟁이학교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나요? 멧쟁이학교는 추석연휴로 목요일 오후부터 내일 저녁까지 가정학습기간으로 푹 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멧쟁이들은 월요일 저녁에 떨리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지리산 종주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죠 ~ ^^

지리산 종주 여행은 어려운 여행이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비록 태풍으로 일정이 바뀌어서 2박3일 코스로 가게 되지만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ㅎㅎ

이번 지리산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채우고 배울 수 있겠지요. 모두들 마음을 모아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비소식이 있어 조금 걱정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

< 교사 : 박예나 >

감사한 것들

방학 동안에 루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루가 새끼를 낳아서 벌써 많이 컸습니다. 새끼들이 이제 제법 많이 예쁜 짓을 합니다. 새끼 교육을 하는 루를 보면서, 개이지만 교육을 참 잘 시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쁜 새끼들에게 안 될 때는 단호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질서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루가 기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끼를 낳은 루의 요즘 모습은 예전보다 활기차고 눈동자가 빛납니다.

벌써 개학을 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조용하던 사랑방공동체가 아이들 소리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언제나 개학을 하면 아이들의 목소리로 안정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없을 때에는 없어서 조용하고 여유가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때때로 아니 개학을 하고 나서는 매일 지나가던 아이들이 묻습니다. 오늘 점심 반찬이 뭐예요? 또는 오늘 간식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알려주면 환호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한마디 합니다. 와~ 맛있겠다.

베다니하늘주방 식구들에게 아이들의 반응을 이야기 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무 조건 없는 기쁨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쁜놈들 더 맛있는 것 해 주어야겠네 하는 표정입니다.

매일 이곳에 있어서 함께 하는 즐거움과 감사 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리 요즘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예전에 3개월이 휙휙 지나갔는데, 지금은 6개월도 아닌 1년이 그냥 휙~하고 날아갑니다. 나이대로 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 걸 보면 아직은 젊은 것 같지만,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이 나이에 ...

그러면서 우리 공동생활에 어린이가 있듯이, 푸른꿈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청년(남3, 여2)들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직접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쌤들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시편 118편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소말리아를 위한 기도>

마틴 그리피스 유엔 사무부총장은 소말리아에 기근 사태가 임박했고 어린이 15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가격 급등을 부추겨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서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국내의 내전 상황이 안정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위한 기도>

기환연은 기독교환경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단체입니다.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가는 단체로서 사역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도 끊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다녀오시는 지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있을 사랑방학교 여행을 위해서, 해외 체험 학습중인 멋쟁이 4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100년 만에 가장 둥글고 큰 달을 볼 수 있었던 즐거운 추석이었습니다.

해가 지며 핑크 빛으로 물들인 하늘에 무늬까지 선명한 큰 달이 뜨니 한가위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도 각처에 계신 친척들을 방문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니 반가움이 더욱 컸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고 공동체에서 추석을 보낸 식구들은 사무실에서 당직도 서고 공동체 보안을 위해 주변도 살피며 무림리를 지켰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